

# 민주통합 '돈봉투' 파문' 해법 고심

뚜렷한 단서 암나와... 전대 주자들도 확전 자제

옛 민주당 출신-시민통합당 세력간 갈등 양상

전당대회 '돈봉투' 과문과 관련, 민주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호를 좌초시킬 절호의 찬스를 잡고 한언론에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작년 12월 전당대회에 비경선(컷오프) 당시 영남권에서 돈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당 지도부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빌어 대응을 위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자 향후 행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당 외부에서 "조사 시동만 한 게 아니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돈을 캤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특정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11일 "고해성사식 고백 없이 '카더라'라는 풍문만 갖고서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결국 의혹은 흐지부지하고 당의 이미지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당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미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당 상황이 어려워지자 전대 주자들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대대적 공세를 펼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한 지 한 달도 안 꽤 구(舊)민주당 출신과 시민통합당 출신의 세력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데 따른 부담 때문에 풀이된다. 자체 진상 조사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시민통합당 측에서 '풍문' 수준의 의혹을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밭을 빼려 한 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통합당 출신의 문성근 후보 층은 이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당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후보 층도 "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현재는 겸활 수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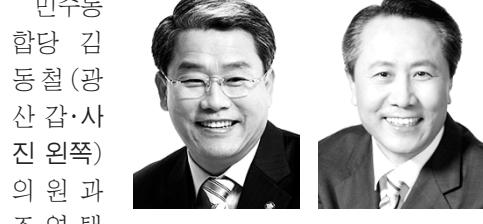
이들이 강경노선을 급ҷ회한 데에는 당내 분란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체 진상 조사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한 인사는 "(시민통합당 측에서) 한 가족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후보끼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행동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한심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김동철·조영택, 의정보고 마무리



다.

이 교수는 "새 세상을 바라는 요구와 정치관을 물갈이하고 민생을 살피라는 요구가 빛날고 있다"며 "지금까지 주구해온 가치들과 가장 일치된 강령과 노선을 천명한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 사회 모든 분야의 균형 달성을, 경제 안정 정책 제도 법제화, 호남 경쟁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소속 시의원인 광주시의회

운봉근 의장과 하문수 의원을 비롯한 광산·갑·사진·진·원·쪽 의원들과 함께 '합동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군용비행장 이전 추진 등 광주의 주요 현안 문제 해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서구 관내 전 지역구를 방문, 연인원 4000여 명의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도시 재개발 문제와 주민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 이민원, 광주 남구 출마 선언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을 역임한 이민원 광주대 글로벌경영학과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광주 남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 정용화 탈당 배경 반박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의 탈당에 대해 한나라당 광주시당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정 이사장의 탈당 배경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광주시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 이사장은 MB정권 탄생과 함께 호남 출신으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현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또 최근까지 국회의원 석폐를 제를 주장하며 호남에 대한 의석안배를 주장해 왔던 그가 탈당의 명분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새로운 정치프레임 운운하며 마치 정치적 혁생양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호남을 품어 안으려는 비전과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내현, 민주 금품살포 진상조사



민주통합당 임내현 광주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열린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와 관련한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아 지난 9~10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 5개 시·도당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임 예비후보는 총 59명의 지역위원장 중 25명의 지역위원장은 직접 면담 조사하고, 34명의 지구당 위원장은 전화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10일 밤 민주통합당 최고회의에 보고했다.

### 김성숙, 출판기념회 성황



19대 총선 광주 서구를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인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이 11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오똑이 김성숙 삶'에서 정치를 끊고자 한다는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지난 9일 김 전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옥정원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융도변경하고, 서구 지역에 광주여고와 삼일여고가 들어선데 기여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았다.

김 전 의원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6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아파트]		소 재 지 및 면적 [㎡]	용 도	[단위: 원]	
2011타경 22939	1	동구 학동 784-1 신영로체클래식 201동 4층 401호 159.9842㎡	아파트	380,000,000 원 차입있음, 2011년 1월 25일 2426년[중복]	임야
2011타경 25044	1	부구 오지동 928-13 2동 2층 202호 57.19㎡ 지하실 3.96㎡	아파트	37,000,000 원 차입있음	임야
2011타경 25617	1	부구 오지동 924-22 229.8㎡ [공유자조정자지분50%부의1전부]	아파트	160,000,000 원 차입있음	임야
2011타경 25952	1	부구 오지동 1007 연제1차대주피오레 10동 1동 1층 89.996㎡	아파트	365,000,000 원 차입있음, 토지 365,000,000 원 불도임기있음	임야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1타경 19506	1	서구 회정동 838-22 160.2㎡	단독주택	139,054,840 원 광주여고, 일괄매각, 제시외 139,054,840 원	임야
2011타경 21783	1	부구 문동동 989-6 180.9㎡	단독주택	225,913,800 원 광주여고, 일괄매각, 제시외 225,913,800 원	임야
2011타경 23550	1	부구 문동동 688-10 132.2㎡	단독주택	200,376,805 원 광주여고, 일자리 200,376,805 원	임야
2011타경 23741	1	남구 사동 176-22 162.㎡	단독주택	81,908,100 원 광주여고, 일자리 81,908,100 원	임야
2011타경 24003	1	동구 각화동 180-14 113.4㎡	단독주택	104,548,360 원 광주여고, 일자리 104,548,360 원	임야
2011타경 28340	1	정성구 남면 분향리 190-2 152㎡	단독주택	50,005,460 원 광주여고, 일자리 50,005,460 원	임야
<b>[대지/임야/전답]</b>					
2011타경 19191	1	광신구 산악동 679-2 374㎡ [분묘소재하여 보도기자권설립여지있음]	전	7,480,000 원 차입있음, 7,480,000 원	임야
2011타경 22304	1	영광군 법설면 월산리 73-1 379㎡	대지	27,641,000 원 광주여고, 일자리 27,641,000 원	임야
2011타경 25181	1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52-3 816㎡	대지	688-8 1787㎡ 제시외 구조물 33.2㎡	임야
2011타경 29053	1	부구 신안동 134-7 4층 409호 21.70㎡	대지	24,000,000 원 차입있음, 관리비 24,000,000 원	임야

###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기타]		소 재 지 및 면적 [㎡]	용 도	[단위: 원]	
2011타경 22663	1	남구 지석동 411-29 194.18㎡	주차장	3,106,880 원	건물만매각대상임
2011타경 24195	1	광신구 창동 929-73 992.7㎡ 제시외 창고 등 252.6㎡	일괄매각, 일괄포함, 임차인 있음	692,220,40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775	1	부구 불광동 929-73 1층 101.35㎡ 2층 101.35㎡ 지하 1층 21.35㎡ 81㎡ [창고] 대 3.9㎡ [번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573,686,40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3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4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5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6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7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8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
2011타경 24959	1	부구 흥동 282-11 1층 125.08㎡ [소 매점] 2층 156.76㎡ 3층 126.57㎡ [2층기타사무소]	일괄매각, 일자리 있음	17,580,720 원	임차인 있음